

배고파 생닭 훔친 ‘주부 장발장’

식료품에 화장지까지… 극빈층 생활고에 생계형 절도 잇따라

지난 27일 오후 4시1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대형마트에서 생닭 등 3만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김모(여·63)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김씨는 5년 전부터 특별한 소득이 없이 지내다 이날 마트에서 한우 양지머리, 생닭 등을 주인 몰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침체로 서민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1년 입건된 절도 사범 11만1390명에 대한 조사 결과, 63%에 달하는 7만225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국내 경기가 전년보다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의 범죄도 지속적인 증가세다. 주부 절도 건수만 해도 2006년 1700건에 머물렀다가 지난해는 310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5년 만에 82.4%나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물가상승, 소득감소 등 침체된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궁여지책으로 남의 집 닭을 낚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서부경찰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범죄도 늘고 있다”면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

광주 여성들, 더 무서워진 밤길

3년새 성범죄 50%나 늘어… 전북 제외 가장 높은 증가세

자치구중 북구 최대

광주 지역 성범죄가 부쩍 늘어났다. 부녀자들이 밤길 돌아다니기 무섭다는 소리가 나올만하다. 28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최근 3년(2010~2012) 전국 경찰서별, 지역별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성범죄 발생건수는 1005건으로, 지난 2010년(671건)에 비해 49.8%(334건) 늘어났다. 전북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경찰서별로는 대표적 유흥지구인 용봉동을 끼고 있는 북구 지역에서 지난해만 317건의 성범죄가 발생, 5개 자치구 중 최대 성폭력 범죄 발생 지역이라는 ‘오명’을 썼다. 북구 성범죄 발생 건수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경찰서 중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다. 북구는 지난 2010년 223건이 발생한 뒤 ▲2011년 234건 ▲2012년 317건 등 성범죄가 급속하게 늘면서 경찰의 치안 활동 강화 및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으로 지난 2011년(616건)에 비해 늘어났다. 그나마 지난 2010년(670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다. 특히 여수의 경우 지난해만 125건이 발생, 2011년 63건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다. 경찰이 금고탈이에 관련되는가 하면, 사채업에 손을 대고 사건 관련자를 성폭행하는 등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범죄 발생률은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완도지역도 지난해 24건이 발생, 2011년(14건)에 비해 다소 늘었다.

■'10~'12 광주·전남 성범죄현황 (단위:건)

경찰서	2010	2011	2012
◆광주			
동부	85	113	134
서부	187	197	249
북부	223	234	317
광산	103	162	217
남부	73	86	88
◆전남			
목포	118	137	118
여수	120	63	125
순천	107	130	111
나주	43	24	38
광양	62	46	37
고흥	15	14	12
해남	24	18	24
장흥	14	18	11
보성	11	12	11
영광	21	13	22
화순	24	19	16
함평	13	15	9
영암	16	13	12
장성	8	10	14
강진	5	8	9
담양	13	16	12
곡성	3	9	6
완도	9	14	24
무안	15	24	19
진안	12	10	8
구례	17	3	9

(조해진 의원실 제공)

대학에 고교생 1명 보내주면 20만원

포항지청, 돈받은 교사 무더기 적발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교비를 횡령한 전문대 총장·부총장·입학처장 등과 돈을 받은 고교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석)은 5억6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기고 교비 8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사기 등)로 포항대 하모(70) 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일부 가담한 이 대학의 부총장·입학처장 등 6명과 학생모집 대가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고교 교사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1000만원 미만을 받은 고교 교사 41명에 대해서는 경북도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2월부터 2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에게 학생모집 대가로 2억20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고등학교 부장교사를 찾아가 “학생모집이 완료된 뒤 1인당 20만원으로 계산해 사례하겠다”고 약속한 뒤 학생모집이 완료되자 학교별로 계산해 지급했다. /연합뉴스



“식중독 조심하세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광주시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28일 중흥동 한 어린이집을 찾아 식중독균 원인균 검사를 하고 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광주시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28일 중흥동 한 어린이집을 찾아 식중독균 원인균 검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마트 전국 24개 지점 ‘특별감독’

노동부, 부당노동 혐의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등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 광주 등 전국 지점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확대·연장하기로 했다.

특검감독 대상을 전국의 이마트 24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감독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 또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받고 확인·처리할 예정이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



탈영 이유는 상관 질책 탓

육군 제 31사단은 지난 24일 고흥 나로 우주센터 경계 근무에 나섰다가 무단 이탈한 이 일병에 대한 조사를 벌여 작전 투입 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데 따른 질책을 듣고 화급에 이탈했다고 28일 밝혔다.

31사단은 다만,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어떤 장비를 갖추지 못했는지, 상관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기를기자 dok2000@kwangju.co.kr

고가 등산복 쓸책 ‘부부 도둑’



등을 돌려 9개월간 600여만원 상당의 등산 의류를 훔친 부부가 나란히 쇠고랑.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0)씨는 지난 11월 25일 오후 4시께 광주시 서구 치광동 한 의류매장에 들어가 부인인 오모(여·31)씨가 망을 보는 틈을 타 등산복을 자신의 점퍼 속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지금까지 20여차례 등산복만 훔쳐왔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새 옷을 입을 때마다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듯해 기분이 좋았다”며 뒤늦게 후회.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많은 콧물이 줄줄 흐르며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를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중-4738호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2013년도 제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제출서류

-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3년 2월 7일(목) 오전 10시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3년 1월 14일(월) ~ 2월 6일(수)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3년 2월 6일(수)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하처

문의할 곳

교하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
-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광신대학교 교하처

나도 이제 보육교사!

1년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교육비(1년액 1,700,000원; 2011년 기준)와 훌륭한 교수진이 준비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지금 노력하십시오.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직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여학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 4주간의 현장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야여야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